

대사면 공감대 형성 '급선무'

새 총무원장의 당면과제

대사회 활동강화등 불교위상 회복 사찰재정 공개-재가 참여 확대 '절실'

98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큰 충격을 치른 조계종단으로서 사태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가 이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가능케 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사에 대한 사면은 정대스님은 물론 지선스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면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두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계를 받았으나 여전히 스님으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스님으로 회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특히 일부 스님은 70세가

될 선 넘은 고령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사면 단행은 앞두고는 신중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인가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정계의 경우 정계 당시의 실제적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 또 사면 대상자의 참회를 전제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사면과 관련해 정대스님은 15일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오를 참회하고 남자로써의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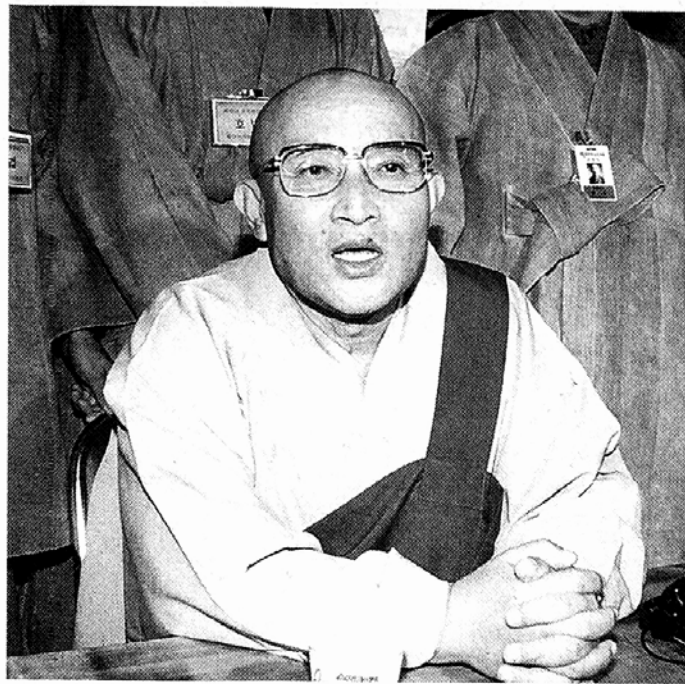
"누구보다도 화합을 이뤄낼 장본인이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면 시행의 책임자임을 강조해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선스님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대스님은 개혁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종단이 되는 것이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선스님을 지지했던 스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종단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지선스님이 제시했던 공약의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선스님이 얻은 134표는 결코 적지 않다. 한 스님은 "불교개혁의 욕구가 지선스님을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스님과 지선스님의 공약을 비교하면, 사회·통일분야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선스님 공약 가운데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불교교류육성의 신설, 불교시민사회개발센터 설립 지원 등은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소홀했던 불교의 사회활동 등을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평가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목표로 삼되 불교의 사회적 회향에도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선스님은 재가단체와 관련해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고산 총무원장 당시의 집행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교사회의 재개발과 사업과 제에 따라 재가단체를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총무원장은 재가단체를 지원하는 하위 간섭하지 않는 재가단체는 총무원에 협조는 하되 하부기관화되지 않는 긴장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합중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없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조계종 새 총무원장 정대스님 "법통 바로세워 화합구현"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정대스님은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통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은 우리 종단이 본래 모습을 견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며 "종단의 본분을 되찾아 화합구현을 구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햇빛 남의 하나만 걸쳐도 세상 모두를 얻은 양 당당했던 초발심의 기개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종단의 법통을 바로 세우고 화합중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없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지선스님과 장주스님께서는 이대로 초야에 묻히지

본분을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종회의원들의 동의, 원로위원과 역대 총무원장의 의견을 들어 종정스님의 재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화합을 이뤄낼 장본인이라는 종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

정대스님은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한 지선스님과 장주스님께서는 이대로 초야에 묻히지 말고 저와 함께 30대 총무원을 운영하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행중단 꼭 만들겠다" 現집행부 가능한 유지

집행부 인선 구상은 마쳤는가.
▲ 먼저 나를 당선시켜준 상의를 받드는 것은 물론 반대의 표를 던진 선거인단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그 분들의 뜻을 종단운영에 반영할 것이다.

지금의 집행부는 잘 하고 있다. 부족한 나와 같이 하겠다면, 전 총무원장이 짜놓은 집행부를 그대로 이어 나갈 생각이다.
-종단 화합 방안은 무엇인가.
▲ 사회는 미전향장기수도 풀어주고 있다. 종교집단보다 앞서가고 있다. 정계를 받았더라도 과오를 참회하고 남자로써의

안 된다. 수행하는 종단이 되는 것이 개혁이다. 그러나 시대가 개혁을 요청하고 있다. 신도들이 원한다면 사부대중이 종단을 운영을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개혁은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젊으면 된다.

-총무원청사 신축,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재정문제 해결책이 있는가.
▲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에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분할기 전에 입주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총무원청사 건립을 공정한 입찰로 실시하되, 종림산업을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비의 지분을 늘린다면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포학사 입주도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고 종림산업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정성운 기자



15일 실시된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정주, 정대, 지선스님(왼쪽부터)이 투표하고 있다.

목어 새천년 해돋이

사람이 햇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다. 그런 만큼 부리다 눈이나 멀지. 그렇인가. 반짝이고 싶은 모든 것은 햇빛있는 대낮에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 하늘의 별들이 대표적 예다. 밤이 되면 보석처럼 온 하늘을 수놓는 별들은 그래서 밤에만 빛을 낸다. 밤하늘의 별들은 낮보다 우리들의 상상력, 철학적 성찰이나 종교적 심성을 더 깊게 해주는 신비감을 지니게 되는데... 하지만 요즘 도시에서야 '문명의 불빛', 그 광해(光害)로 밤에도 별들의 신비를 체험하기란 쉽지 않다. 종교심에서 멀어져만 가는 오늘의 인심이 이 같은 '문명의 불' 탓은 아니겠는가. 어쨌거나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태양도 사람 눈높이에서 정경계 마주 바라다볼 수 있는 때가 있다. 일출과 일몰, 아침 해돋이와 저녁 해넘이 때가 그렇다. 특히 바다 수평선으로

투표장 풍경

시종 차분하게 진행
○...15일 치러진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는 시종 차분하게 진행됐다. 13일 오후부터 올라와 있던 선거인단은 이날 오후 12시30분경부터 속속 투표장인 조계사 대웅전에 입장했다. 총무원장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투표장내 등에 대비해 조계사 입구에 청년호반단 5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도 투표 전날인 14일부터 조계사 주변에 2개 중대의

병력을 투입해 순찰을 돌렸다.

"결과 승복각서" 요청
○...중앙선관위위원장 덕운스님은 투표에 앞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겠으며, 결과에 대해 사회법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후보들의 각서를 낭독한 데 이어 개표에 앞서서도 같은 내용의 각서에서 서명을 받아오도록 각 후보의 선대본부장들에게 요청하는 등 투표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썼다. 또 종단사문번호사 3인이 투·개표 과정에 참관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내·외신 취재 열기

○...중앙선관위는 오전 11시부터 선거사무 관제사 이외의 사람의 대웅전 출입을 통제해 기도하러 온 10여명의 신도들은 대웅전 회랑에 자리를 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투표장 면 촬영을 위해 20여분 동안만 취재진에게 개방하고 개표완료 때까지 출입을 통제했다. 기자들은 투·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대웅전 문틈으로 투표장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물론 중앙일간지 방송사 로이터통신 등 50여명의 취재진과 조계사 인근의 재가단체 회원들이 나와 선거과정을 지켜보는 등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개시 예정시각인 오후 1시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의 인사말, 투표 방법 안내 등 간단한 의식을 치른 뒤 곧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모시는 글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신도님들의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부처님의 정골 진신사리를 모신
이곳 통도사에서는
연중행사의 하나로 제방의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화엄산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화엄경 한 구절과 한 계승만 들어도
고통에서 해매이는 영가들과 중생들은
복과 지혜가 갖추어져 성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고향의 위패를 봉안하여
천도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고 다함께 성불과
이교득락 하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9년 11월

다 음

1. 입재일 : 1999년 12월 8일(음력. 11월. 1일) 오전10시 [수요일]
첫째주 : 1999년 12월 12일(음력. 11월. 5일) 오전10시 [일요일]
둘째주 : 1999년 12월 19일(음력. 11월. 12일) 오전10시 [일요일]
셋째주 : 1999년 12월 26일(음력. 11월. 19일) 오전10시 [일요일]
네째주 : 2000년 1월 25일(음력. 11월. 26일) 오전10시 [일요일]
회 향 : 2000년 1월 6일(음력. 11월 30일) 오전10시 [목요일]
2. 장 소 : 통도사 설법전
3. 회 비 : · 100,000원정(1개월숙식비,비표부착)
· 50,000원정(반산림)
· 영가천도1위당 7,000원정
4. 문의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통도사총무소 (0523)382-7182
6. 접수처 : 회계실 (0523)382-7187

대인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제15교구본사

증명 방 장 율 하 대종사
주 지 최신허

통도사 : (0523)382-7182 (총무소)
부 산 : (051)816-2241 (부산포교원)
532-3042 (금화사) 522-3202 (청송암)
802-2887 (보현사) 646-6461 (보광사)
809-0073 (성도암)

마 산 : (0551)246-8393 (마산포교당)
창 원 : (0551)255-6359 (구룡사)
울 산 : (0522)211-3340 (해남사) 251-0410 (동충사)
251-4602 (월봉사) 287-0088 (옥천암)

밀 양 : (0527)354-3296 (무봉사) 252-1150 (표충사)
352-0125 (홍계사)

창 녕 : (0559)533-2295 (창녕포교당) 521-0018 (삼성암)
대 구 : (053)474-8228 (관음사) 783-8414 (보광원)
421-7488 (자비의 전화)

대 전 : (042)535-3624 (무성사)
서 울 : (02)575-7766 (구룡사) 395-9815 (보현사)

교통편 OK 고속관광(부산) 051-635-7001

- ▶ 부산시간 : 온천천철역 앞 오전8시부터 9시까지(20분간격출발)
· 대중교통 - 명륜동 동부주차장에서 신령행 대 20분간격 출발 (오전6시30분부터)
- ▶ 울산 태화관광 버스편 울산 방어진 일산해수욕장 (07:20) → 현대APT → 중구경 → 태화/7 → 공업탑 R → 무거 R → 통도사 (매일운행)
· 대중교통 울산 - 통도사(직행) 울산시외버스 주차장에서(오전7시30분출발)
- ▶ 입재, 재일, 회향일은 차량 수시 운행